



PRESS KIT

테사(TESSA)

정업지 매니저 010-9160-1349 | thumb@tessa.art

홍보대행사 프레인글로벌

권민정 팀장 010-2827-8263 | mjkwon@prain.com

이준호 과장 010-7350-0243 | jhlee@prain.com

김지수 과장 010-9926-2254 | jsukim@prain.com

Contents

1. 기업 소개

2. 주요 연혁

3. 대표이사 소개

4. 서비스 소개

(1) 서비스 개요

(2) 서비스 차별점

[특징 ①] 분할 소유권 최소 1천원 구매부터 매각 대금 지급까지

[특징 ②] 글로벌 미술 시장 데이터로 선정한 블루칩 미술품

[특징 ③] 미술 작품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TESSA 뮤지엄

[특징 ④] 블루칩 미술에 대한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하는
다양한 무료 콘텐츠

(3) 모바일 플랫폼 소개

(4) 오픈 후 성과

5. TESSA 뮤지엄 주요 작품 소개

6. 기타 참고자료

1. 기업 소개

“TESSA, ASSET의 관점을 바꾸다...꿈꾸는 것이 자산이 된다!”



테사(TESSA)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블루칩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자산 경험을 제공하는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입니다. 기업명 역시 ‘자산의 관점을 바꾸다’라는 의미에서 자산을 뜻하는 ‘에셋(ASSET)’의 스펠링을 뒤집어 만들어졌습니다.

테사는 누구나 쉽게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플랫폼입니다. 기존 미술품 거래 시장은 고가의 작품 가격과 미술 투자의 지식 부재로 소수만 접근 가능한 시장이었지만, 테사는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검증된 블루칩 작가의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최소 1천 원부터 구매할 수 있게 해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한편, 테사는 자회사인 ‘테사 에셋(TESSA ASSET, 구 아트리서치팀)’을 통해 전문성 고도화와 비즈니스 영역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테사 에셋은 테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미술품’의 매입과 매각을 비롯해 테사의 전시 공간인 ‘TESSA 뮤지엄’과 ‘도슨트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업명	(주)테사(TESSA)
설립일	2019년 3월
대표이사	김형준
위치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5, 3층 (동일 건물 2층에 전시 공간 ‘TESSA 뮤지엄’ 운영)
사업분야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대표 보유 미술품	▲마르크 샤갈 ‘La mariee or Les amoureux aux fleurs’ ▲뱅크시 ‘Love Rat’, ‘Nola’, ‘Girl with Balloon’ ▲루치오 폰타나 ‘Concetto Spaziale, 1952(executed in 1956)’ 등 다수 작품

2. 주요 연혁

- 2019.03 **주식회사 테사(구, 아트블록코리아) 설립**
 - 09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작품 2점 분할 소유권 파일럿 판매 (작품명: ‘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 ‘Focus Moving’)
- 2020.04 **아트테크 플랫폼 ‘TESSA’ 플랫폼(앱) 서비스 런칭**
 - 07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에 대한 특허 등록 (특허번호: 제 10-2141069호)
- 2021.01 카카오의 가상자산 지갑인 클립(KLIP)과 제휴
 - 03 ‘2021 대한민국 브랜드파워 1위’ 수상 (아트테크 플랫폼 부문)
 - 06 금융위원회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
 - 08 롯데멤버스와 미술품 분할투자 제휴
- 2022.03 NH농협은행 MOU 체결
 - 06 소더비(Sotheby’s) 출신 글로벌 사업개발 본부장 ‘잭쇼(Jack Shaw)’ 영입

3. 대표이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테사 김형준 대표입니다.

기존 미술품 거래는 소수의 정보를 알고 있는 고액 자산가 또는 일부의 전문 컬렉터들만이 참여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가의 미술품에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했습니다.

테사 플랫폼을 통해 최소 1,000원부터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 약 2년 2개월 만

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등 아트테크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사는 아트테크 시장에서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업계를 선도하며, 나아가 미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현재 (주)테사 대표이사 · 2013~2019 버즈아트(BBuzzArt)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 · 2010~2013 지오 소프트웨어(GIO Software) 대표이사 · 2008~2012 이스라엘 회사 엑스포비(ExpoBee) 프로덕트 매니지먼트팀 · 2007~2007 삼성 SDS 신사업 기획팀 · 2002~2006 SK텔레텍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팀/프로덕트 기획&마케팅팀

4. 서비스 소개

(1) 서비스 개요

테사는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검증된 **블루칩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조각투자할 수 있는 아트테크 플랫폼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인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뱅크시(Banksy), 앤디 워홀(Andy Warhol) 등 블루칩 작가 위주의 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모아코 보아포(Amoako Bofo), 리우 예(Liu Ye)처럼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드커리어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미술품 투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술품 구매의 장벽을 한층 낮춘 테사 플랫폼 특징 덕에 지난 12월 뱅크시 작품인 ‘Love Rat(2004)’은 판매 시작 1분 만에 완판하였고, 현재(2022년 6월 말 기준) 12만 명 이상의 회원이 테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차별점

테사 서비스 특징

<p>높은 사용 편의성</p> <p>모바일 앱을 통해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1천원부터 소액으로 구매 가능</p>	<p>블루칩 미술품</p> <p>자체 데이터 분석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검증된 블루칩 미술품 선정 및 수급</p>	<p>전시 공간 운영</p> <p>테사 뮤지엄 내 작품 실물 감상 무료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p>	<p>무료 콘텐츠 제공</p> <p>블루칩 미술 콘텐츠 제공 (App/Youtube/Blog)</p>
---	---	--	---

[특징 ①] 모바일 앱으로 최소 1천원부터 구매 가능한 ‘미술품 분할 소유권’

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블루칩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을 최소 1천 원부터 구매할 수 있고, 카드나 현금,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술품 매각 시, 테사는 해당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을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매각 투표 공지 및 매각 여부 투표를 진행합니다. 분할 소유권자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테사 에셋을 통해 미술품 매각이 완료되고, 이후 분할 소유권의 보유 지분에 상응하는 ‘매각 대금’이 지급됩니다.

테사는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 구매에서부터 매각 대금 지급까지, 구매 과정의 간편화로 투명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식 판매가 종료된 미술품의 경우 테사 플랫폼 내 마켓 탭에서 이용자 간(P2P) 자유롭게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할 소유권을 보유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마켓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보유 중인 분할 소유권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이 보유 중인 분할 소유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 ②] 글로벌 미술 시장 데이터로 선정한 블루칩 미술품

테사 블루칩 아티스트 선정 기준

전세계 아티스트 랭킹 200위 이내	글로벌 경매 기관의 거래 이력 유무	연간 경매 거래 횟수 100회 이상	연평균 경매 거래 금액 \$1000만 이상	경매 유찰률 30% 이하
---------------------------	------------------------	---------------------------	-------------------------------	---------------

테사는 미술품에 대한 더 높은 자산적 경험과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200위 블루칩 아티스트 위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블루칩 미술품은 테사의 100% 자회사인 테사 에셋(TESSA ASSET)이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테사 에셋은 작품의 매입과 매각, 큐레이팅 등 작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테사 에셋에서는 글로벌 미술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까다로운 작가 선정 기준과 작품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합니다. 이후 해외 전문 갤러리 네트워크 등을 통해 최적화된 가격에 작품을 수급하며, 작품 위작 여부 및 미술품 상태 등 꼼꼼한 최종 확인을 거쳐 테사 플랫폼을 통해 해당 미술품을 분할 소유권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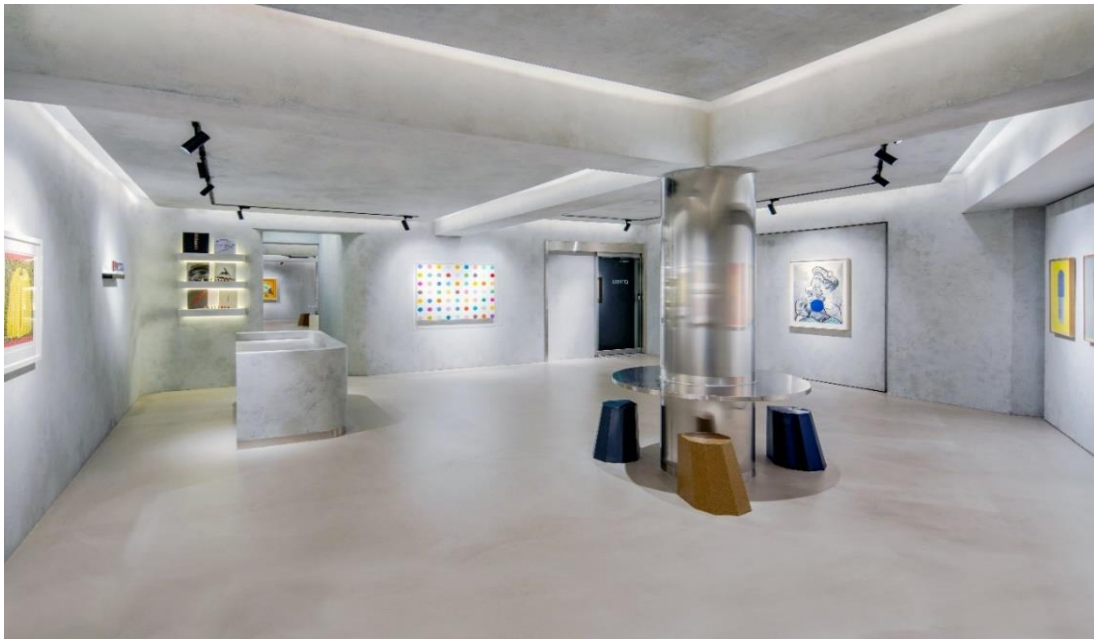
또한 테사는 판매한 블루칩 미술품 분할 소유권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거래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분산 원장 특허기술을 통해 분할 소유권 증명부터 거래 이력 및 양도 현황 확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테사 에셋(TESSA ASSET)**

: 기존 테사 아트리서치팀(ART Research&Acquisition)이 전문성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을 위해 분화된 주식회사 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 테사 에셋에는 순수미술, 미술사, 박물관학, 문화예술경영 등 미술분야 전공자와 금융,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미술시장 데이터 분석 ▲투자 작품의 가치와 미술시장 전망 예측 ▲작품 매입과 매각 및 큐레이팅까지 작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징 ③] 미술 작품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TESSA 뮤지엄



테사 플랫폼을 통해 분할 소유권이 판매된 블루칩 미술품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전시 공간 ‘TESSA 뮤지엄’에 전시됩니다. **TESSA 뮤지엄**은 테사 에셋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테사 회원 전용 라운지이자 **국내 최초 아트테크(Art-tech) 전시 공간**으로, 테사 회원은 해당 공간에 방문해 미술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최초로 루치오 폰타나 단독 전시를 선보였으며, 현재는뱅크시, 앤디워홀, 마르크 샤갈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경험적 가치 서비스의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수장고에 보관 중이거나 매각이 완료된 미술품의 경우 관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테사 에셋은 지난 5월부터 TESSA 뮤지엄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폭넓게 경험하는 기회를 선사하고자 고객 대상 정기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 해설은 TESSA 뮤지엄 큐레이터가 담당하며, 테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세미나, 강연 등 미술 시장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치 및 운영시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5, 2층 / 화요일-토요일 12:00~18: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휴관)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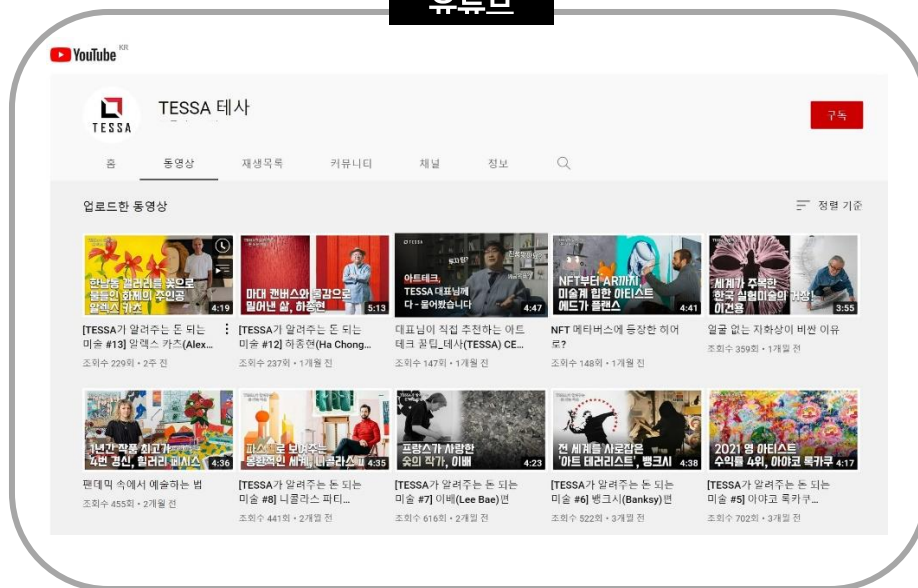
- 2021.04 영국 런던의 로빌란트+보에나(ROBILANT+VOENA) 갤러리 파트너십 체결
- 05 자사 전시 공간 **#UNTITLED 공식 개관**
- 05 **루치오 폰타나 국내 최초 단독전(展) ‘I.FONTANA’ 개최**
- 07 루치오 폰타나 국내 최초 단독전(展) ‘I.FONTANA’ 종료
- 10 **#UNTITLED TESSA 회원 전용 라운지로 리뉴얼 재오픈**
- 2022.02 TESSA 뮤지엄으로 공간명 변경
- 05 고객 대상 정기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특징 ④] 블루칩 미술에 대한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하는 다양한 무료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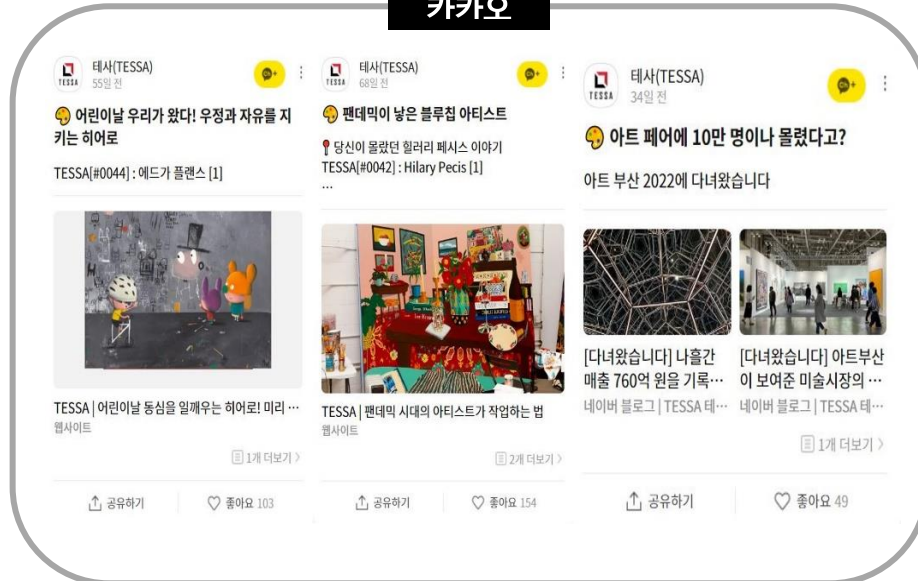
테사는 플랫폼(앱),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의 채널을 통해 테사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블루칩 미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사 에셋이 선정한 블루칩 미술품 스토리부터 이달의 테사 소식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미술시장과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이슈는 물론 TESSA 뮤지엄 랜선투어 콘텐츠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블루칩 미술품의 섬세한 색감과 패턴도 비대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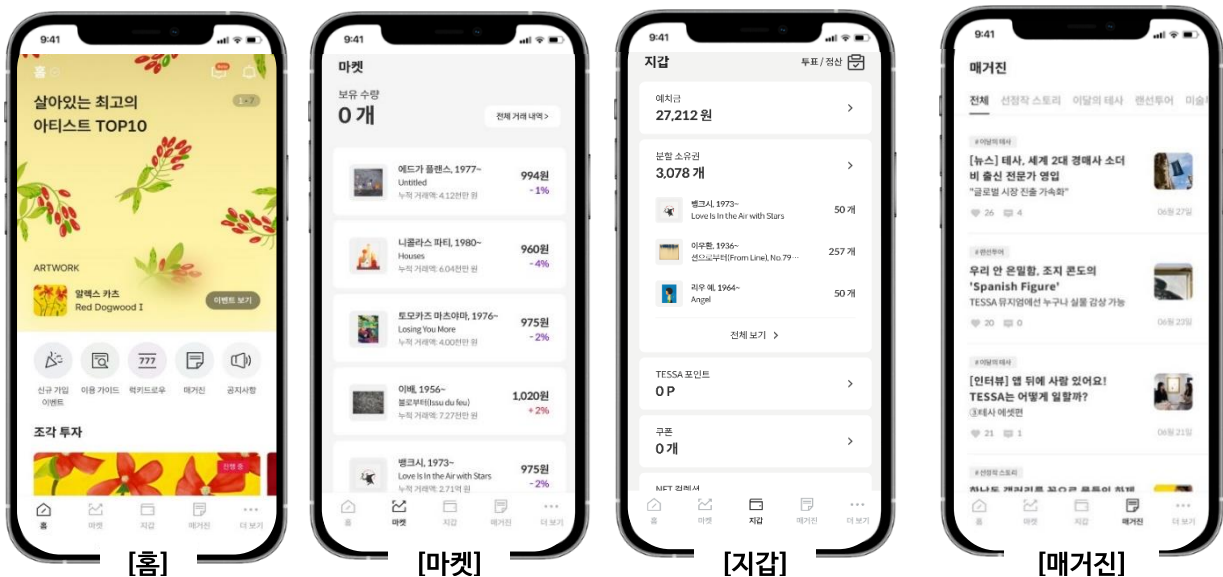


(3) 모바일 플랫폼(앱) 소개

테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간편함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각 작품을 클릭하면 작품에 대한 구매 포인트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켓 탭을 통해 지난 작품의 분할 소유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회원과 분할 소유권을 거래(P2P)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각 작품에 대한 분할 소유 권리를 인증하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지갑 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분할 소유권 수량 등을 살펴볼 수 있고, **매거진 코너**를 통해 매월 발행되는 '월간 테사'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 소식, 안내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오픈 후 성과

테사는 2020년 4월 서비스 오픈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사 플랫폼 사용자 수는 12만 명 이상(22년 6월 기준)을 기록할 정도로 참여와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뱅크시 'Love Rat' (2004) 작품이 오픈 1분 만에 완판되는 등 작품 판매 속도가 단축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구매 금액과 재구매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누적 판매 총액
298억원+



회원 수
126,743명

CAGR(회원 수)
4,024%



평균 구매 금액
72만원

회원 연령대 분포
30>40>20>50



작품 당 최대 참여자 수
7,300명+

최단 판매 소요 시간
1분



*2022년 6월 30일 기준

5. TESSA 뮤지엄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작가 및 작품

(1)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환상적인 색채, 뒹뒹 떠다니는 연인 등 몽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마르크 샤갈은 피카소와 함께 20 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러시아 출신 프랑스 작가입니다. 한평생 아내인 벨라를 뮤즈로 ‘사랑’이라는 소재를 다루었으며,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MoMA), 벨기에 왕립미술관 등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손꼽히는데, 지난 2004 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회가 총 관람객 70 만 명을 기록하고 지난 2018년 예술의전당 전시회가 56 일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그 인기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La mariée or Les amoureux aux fleurs (1959)



Oil on canvas /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Comité Marc Chagall / 62.9(H) x 47.9(W) cm

La mariée or Les amoureux aux fleurs (1959)는 제목 그대로 ‘신부 혹은 꽃 속의 연인들’이 묘사된 작품입니다. 특유의 풍성한 색채와 꿈결 같은 화풍, 신부와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샤갈의 가치관이 느껴지는 시그니처 작품이기도 합니다. 색채의 시인이라는 수식어답게 푸른색 · 흰색 · 붉은색의 조합이 수려하게 어우러지는데, 이는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 샤갈이 자주 묘사했던 자유의 상징이자 그가 젊었을 적 방문한 뒤 고흐, 마티스 등의 그림을 감명받아 두 번째 고향으로 삼았던 프랑스의 국기 색깔이기도 합니다.

테사가 소개하는 La mariée or Les amoureux aux fleurs 는 별도의 에디션이 존재하지 않는 유니크 피스로, 앞뒷면에 작가의 친필 서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샤갈의 시그니처 소재(꽃다발, 신부, 위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풍경, 하늘의 달, 동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해당 소재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 유사 페인팅 작품들이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매우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그 투자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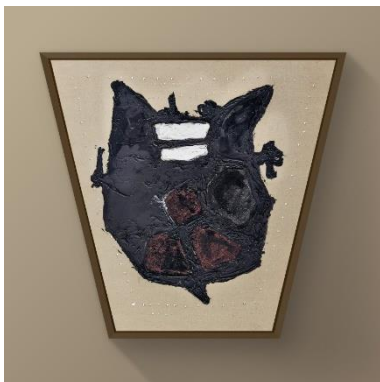
(2) 루치오 폰타나 (Lucio Fontana, 1899~1968)



루치오 폰타나는 캔버스에 붓을 사용해 그림 그리는 기법이 당연하던 시절, 캔버스에 구멍을 뚫는 ‘부키(Buchi)’와 캔버스를 베어내는 ‘탈리(Tagli)’ 기법을 고안한 전설적인 이탈리아 예술가입니다. 이를 통해 평면의 캔버스를 무한한 우주로 확장시키는 ‘공간 개념’을 창조하였으며, 르네상스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회화를 탈피하였습니다.

근현대미술의 초석으로서 현재 런던 테이트모던과 뉴욕 현대미술관 등 전세계 유수의 대형 미술관에 작품이 영구 소장되어 있어 국내에서 유독 만나보기 어려웠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Concetto Spaziale, 1952 (executed in 1956)



Oil and Glitter on Canvas / 100(H) x 95(W) cm

Concetto Spaziale, 1952 (executed in 1956)은 루치오 폰타나가 1950년대 중반에 사다리꼴 형태로 다섯 점 한정 제작한 희귀작 중 하나입니다. 캔버스에 구멍을 뚫어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루치오 폰타나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폰타나의 시그니처인 작품으로, 작품 앞뒷면에 작가의 친필 서명과 제작 연도, 작품명이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경매에 출품된 것은 1994년과 2019년 단 두 번뿐이며 근현대미술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예술적, 투자적 가치를 모두 높게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3) 앤디 워홀 (Andy Warhol, 1928~1987)



팝아트의 대명사 앤디 워홀은 본격적으로 아트 비즈니스를 구축한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품을 작업 소재로 삼아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작업실을 팩토리(The Factory)라 이름 붙이고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등 예술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접목시켰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바스키아부터 오늘날의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까지 수많은 현대 미술가들에게 영감이 된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60년대 미국을 대표했던 아티스트답게, 지난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한화 약 1,120억으로 역대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며 사후에도 변함없는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Marilyn Monroe (1967) / Dollar Sign (1980)

TESSA 뮤지엄 대표 전시 작품 - Marilyn Monroe (1967)



Screenprint in colours on paper / Outside of the Edition of 250 (Unique) / 91.4(H) x 91.4(W) cm

Marilyn Monroe (1967)는 할리웃 스타 마릴린 먼로를 모티브로 한 ‘마릴린 먼로 시리즈’의 일환으로, 1967년 앤디 워홀의 스튜디오에서 발행된 오리지널 에디션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다양한 컬러로 탄생해 주목받았던 이 작품은 ‘예술가보다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워홀의 면모를 보여준다’고도, ‘마릴린 먼로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했던 미디어에 대한 풍자’라고도 평가받습니다.

테사가 소개하는 해당 작품은 전체 250개의 에디션 외에 별도로 제작된 단 한 점의 작품으로 미술시장에서 그 희소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키스 해링 (Keith Haring, 1958~1990)



앤디 워홀, 바스키아와 함께 3대 팝 아티스트로 손꼽히는 키스 해링은 198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통통 튀는 원색, 유머러스한 낙서에 반전(反戰) 및 인종차별 반대의 메시지를 담아 낙서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며, 미술관 대신 지하철역과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등의 파격적 행보로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에이즈로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한평생을 바쳤던 키스 해링은 지난 2017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650만 달러(한화 약 78억)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미술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Untitled(1983) / Retrospect(1989)*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Retrospect(1989)*



Screen-print in colours on wave paper / Edition of 3 P.Ps (Plus Signed Edition of 75) / 103.5(H) x 195(W) cm

*Retrospect(1989)*는 키스 해링의 시그니처 아이콘인 ‘짚는 개’, ‘빛나는 아기’, ‘춤추는 사람들’ 등 24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프린트 작품입니다. 이는 각각 ‘개는 동물과 영혼의 대변자이고, 아이는 원초적 인간의 이미지’라는 키스 해링의 생각과 1970년대 후반 뉴욕의 브레이크 댄스에서 영감 받아 탄생한 이미지들로, 키스 해링 특유의 예술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해링의 신념에서 탄생한 그래피티적 요소들-간결한 선과 발랄한 색상, 익살스러운 카툰풍, 직관적인 이미지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그 자체로 키스 해링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가 사후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명할 때 기준이 되는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에 포함되어 있어 키스 해링의 작품으로서 투자적, 예술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5) 뱅크시(Banksy, 1973~)



뱅크시는 1990년대부터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이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그래피티 아티스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아티스트’라고 불릴 만큼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진 바 없으나 전쟁, 자본주의, 아동 착취, 환경 파괴 등을 풍자하는 강렬한 이미지로 전세계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화 224억으로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지 7개월 만에 한화 300억을 경신하며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Lovels In the Air with Stars* (2003) / *Bomb Middle England* (2003) / *Girl with Balloon* (2004) / *Love Rat* (2004) / *Nola* (2008) / *Jack and Jill* (2005) / *Choose Your Weapon (Bright Purple)* (2010) and *Banksquiat (Grey)* (2019)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Girl with Balloon* (2004)



Screenprint in colours / Signed Edition of 150 /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Pest Control Office / 70(H) x 50(W) cm

‘Girl with Balloon’은 21세기 어반 아트의 아이콘이자 뱅크시의 대표작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2002년 런던에서 발견된 동명의 스트리트 아트를 기반으로 하며, 당시 작품과 함께 발견된 텍스트 “There is always hope”를 통해 ‘손에 닿지 않는 듯 보일 때조차 희망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전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 작품은 지난 2017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테사가 소개하는 *Girl with Balloon*은 총 750개의 에디션 중 150개 한정 제작된 뱅크시의 친필 사인본 중 하나로, 그 희소성과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뱅크시의 공식 작품 보증 기관인 페스트 컨트롤(Pest Control Office)에서 발급한 작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현재 미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아이코닉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투자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6) 데이비드 호크니(DavidHockney, 1937~)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전설’,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20 세기 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영국의 팝 아티스트입니다.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 도전정신이 가장 큰 특징으로, 1960년대부터 필름 카메라·컴퓨터·팩스·아이패드 등 실험적이고도 다양한 매체로 작업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9,030만 달러(한화 약 1,019억)에 낙찰된 작품으로 생존 작가 중 최고 작품가 기록을 경신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로 관람객 35만 명을 기록하는 등 ‘호크니 신드롬’을 탄생시켰습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Lithograph of Water Made of Thick and Thin Lines, a Green Wash, a Light Blue Wash, and a Dark Blue Wash (1978-1980)
/ In Front of House Looking North (2019) / In Front of House Looking South (2019)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Lithograph of Water Made of Thick and Thin Lines, a Green Wash, a Light Blue Wash, and a Dark Blue Wash (1978-1980)



Colour lithograph on laid paper / 64 of 80 numbered prints from a total edition of 102 / 50.5(H) x 70.3(W) cm

Lithograph of Water Made of Thick and Thin Lines, a Green Wash, a Light Blue Wash and a Dark Blue Wash (1978-1980)는 오늘날 데이비드 호크니의 가장 아이코닉한 연작으로 손꼽히는 ‘수영장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사용된 색상에 따라 다양한 시리즈로 구별되며, 그중 테사의 선정 작품은 제목 그대로 초록색·하늘색·파란색을 통해 가장 밝고 청량한 느낌을 풍깁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된 총 80점의 서명 에디션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가장 최상급으로 손꼽히며, 쾌청한 날씨의 수영장과 푸르게 일렁이는 물결 등 호크니의 대표적인 소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다 작가 사후에 작품 진위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e)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투자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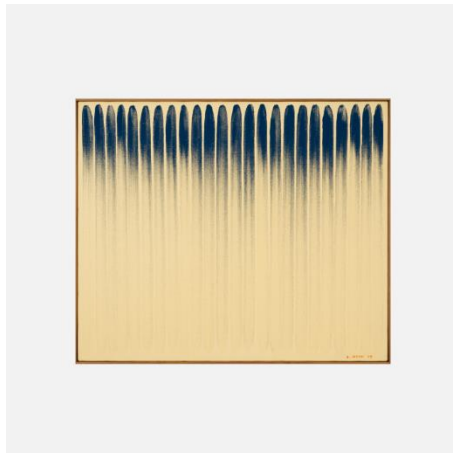
(7) 이우환 (Lee Ufan, 1936~)



‘국내 생존작가 중 가장 비싼 작가’로 기록된 이우환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 아티스트입니다. 돌, 철판 등 있는 그대로의 물체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낸 ‘모노하’ 작업, 점과 선을 통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담은 ‘점으로부터’ · ‘선으로부터’ 시리즈 등 동양적 사고로 서구 미니멀리즘을 재해석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답게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파리 베르사유 궁전 정원, 상하이 PSA 현대미술관 등에서 대작을 선보여 크게 주목받았으며, 지난 2020년에는 추상화가 김환기를 제치고 작가별 낙찰 총액 1 위(약 150 억)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8 월에는 국내 생존 작가 중 최초로 경매가 30 억 원을 뛰어넘으며 본인의 작품 최고가를 두 달 만에 경신하였습니다.

TESSA 뮤지엄 전시 작품 - 선으로부터(From Line)(1979)



Mineral pigment on canvas / 60.6(H) x 72.7(W) cm

선으로부터(From Line)는 점과 선의 작가로 불리는 이우환의 대표 연작 ‘선으로부터(From Line)’의 일환입니다. 캔버스에 길게 그어 내린 선을 통해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흐릿해지는 선에서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모습에서 전체적인 조화 속 가치를, 마음을 비우고 선 굵기를 반복하는 행위에서 동양적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돌, 유리 등 있는 그대로의 물체로 작업하던 작가가 뉴욕에서 추상 미니멀리즘 작품을 접한 후 탄생했다고 전해지며, 본질만 남기는 서양의 미니멀리즘을 동양적 감성으로 재해석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한편 ‘선으로부터’ 시리즈는 지난 2014 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한화 25 억 원에 낙찰되며 세계적 거장으로서 이우환의 입지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6. 참고 자료

(1) [테사 관련] 블록체인 분산 원장 특허 기술 보유



미술작품에 대한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테사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특허 기술로 해킹 및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분할 소유권 현황과 거래이력 등을 블록체인 상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합니다.** (특허 제10-21410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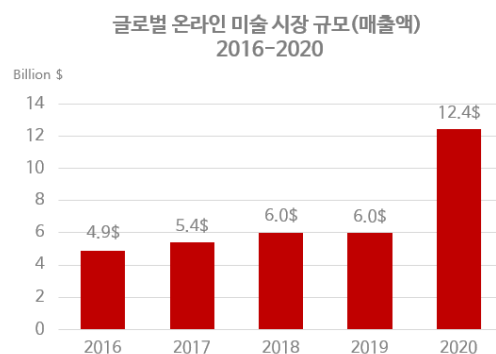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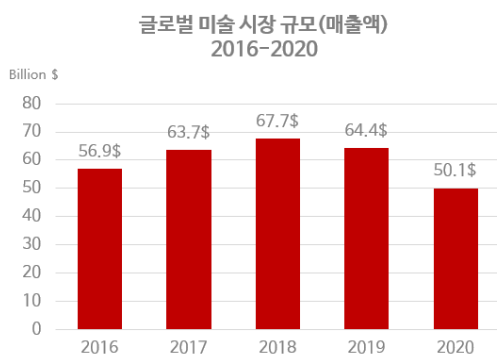
기존에도 조각투자의 개념은 있었지만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활성화한 것은 테사가 최초이며, 테사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특허 기술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블루칩 미술품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Node)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분산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고 공유하며 거래 정보는 모두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검출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업계 관련] 2020년 글로벌 온라인 미술시장 15조 규모로 급성장

세계 최고이자 최대의 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 바젤(Art Basel)과 후원사인 UBS가 발간한 '미술시장 보고서(The Art Market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글로벌 미술시장의 규모(501억달러, 약 59조6000억원)는 2019년 대비 22% 감소세를 보였지만, **온라인 미술시장의 판매액은 오히려 2배 이상 늘면서 124억달러(약 14조70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전체 미술시장에서 9% 정도 차지했던 **온라인 시장의 비중도 불과 1년만에 25%(2020년)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미술시장 분석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MZ세대의 수요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온라인 미술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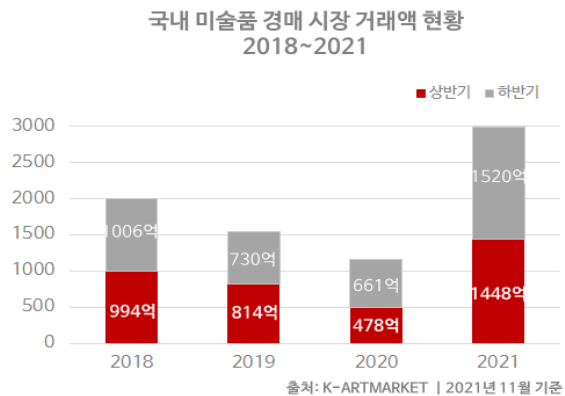
출처: The Art Market 2021

(3) [업계 관련] 호황기를 맞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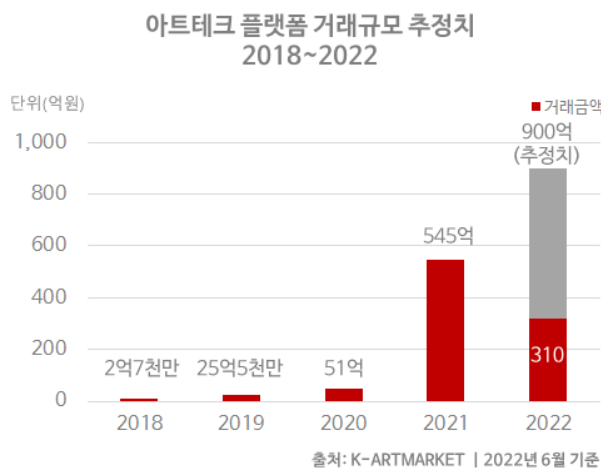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 미술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K-ARTMARKET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미술시장 규모는 약 9,2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9천억원이라는 규모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미술시장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미술시장 규모를 조사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술시장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경매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경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60.6% 증가한 2,96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8년 서울옥션이 설립된 이후 국내 경매시장 최대 규모이며, 국내 미술 시장 사상 최대의 경매 실적이었던 지난 2018년의 기록(2,000억원)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올해 미술시장은 이 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9월 코엑스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영국 프리즈와 한국을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키아프)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 미술 시장에 더 큰 관심이 모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업계 관련] 인기 입증하고 있는 아트테크 플랫폼 업계



아트테크 플랫폼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매력과 함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유명 작가 작품을 ‘조각 투자’ 작품으로 선정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유권을 분할해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아트테크 플랫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의 아트테크 플랫폼의 누적 미술품 거래 금액은 약 3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1년 전년도 한 해의 거래 금액(약 545억 원)의 56%를 넘긴 규모로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9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